

광주로... 부산으로... 국민의당 제 같길 가나

통합 반대파 오늘 DJ센터서 토론회·내일 초선들과 진로 논의

국민통합포럼 내일 안·劉 참석 부산서 세미나... 선거연대 선언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둘러싸고 분열된 국민의당의 두 세력이 제 같길 가기에 나서면서 분당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파인 국민통합포럼은 영남에서, 통합 반대파인 평화개혁연대는 호남에서 각각 행사를 개최하는 등 독자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양측이 분당을 염두에 두고 세 규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오는 14일 오후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함께 참석, 통합 기운을 북돋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포럼 측이 생각한 행사 장소

는 광주였지만 통합에 대한 호남 민심이 악화되면서 부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경우 양당 부산시당이 지난 11일 선거연대까지 선언하는 등 통합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합파는 이 행사를 계기로 통합 분위기를 고조시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생각이다. 부산뿐 아니라 양당의 대전시당 당직자들도 지난 주말 보문산을 함께 오르며 친목을 다지는 등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연대 시도가 꿈틀대고 있어 통합파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호남 중진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반대파 진영도 세력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평화개혁연대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를 주

제로 토론회를 한다. 평화개혁연대 준비모임 간사인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박지원, 김동철, 천정배, 정동영, 장병완, 이상돈, 최경환, 박주현, 김경진 의원 등 호남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까지 한자리에 모여 통합 반대 목소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평화개혁연대는 다음 날인 14일에는 초선의원 10명 모임인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의원)와 오찬 연석회의를 하고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구당초는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발하면서도 당내 분열을 우려해 평화개혁연대 활동 참여에는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 회동을 계기로 두 모임이 '반안'(反安·반안철수) 공동전선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통합 반대파는 이날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먼저 합친 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

의당이 뉴라이프 세력의 제물로 바쳐지고, 보수세력 부활의 길을 열어준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안 대표는 지금까지도 통합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정배 전 대표도 트위터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반민심·반개혁·적폐통합의 길임이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양측의 자제와 통합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호남과 정치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통합이 무슨 놈의 통합인가"라고 안 대표를 공격하면서도 반대파 일각의 '안철수 재선임' 요구에 대해 "선출된 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뒤에서 비판만 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도 "아직 통합을 밀어붙일 것은 아니다"며 "시간을 두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드라이브

비공개 회동...개정안 신속처리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 표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법' 입법에 재차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하지만 법안 표류의 원인이 됐던 민주당내 의견 대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했으나, 여야 3당 간사의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이용득 강병원 의원 등 여권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외의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은 12일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서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후에는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홍영표 한노위원장과 한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 그리고 여야 간사 간의 합의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용득 의원과 강병원의원이 비공개로 회동해 절충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홍 한노위원장은 '간사들의 합의안이 현재로써는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과 강 의원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연령 하향 쟁점

선거법 개편 논의 진전 없어...한국당 부정 입장 고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18세 하향 방안 등의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도 개선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에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 5건,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사항 3건, 투표에 관한 사항 5건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확연한 입

장차를 보이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에 대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찬성했지만 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한 여당 의원은 "현행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심해 도저히 협상이 안되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與 당직자 블라인드 채용 'SKY' 출신 '0'

6명중 2명 지방대... 전남대·영남대 각각 1명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블라인드 채용 제를 이용, 선발한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6명 중 2명이 지방대 출신이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입사지원서나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신적 조건,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채용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에서 전면 도입됐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14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채용에서는 전남대 출신 1명과 영남대 출신 1명이 나란히 선발됐다. 우연히도 영·호남을 아우르는 '지역 안배' 채용이 됐다.

이 외에 서강대 출신 2명, 중앙대 출신 1명, 성균관대 출신 1명이 각각 선발됐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 출신 합격자는 없었다. 해외 유명 대학 출신도 모두 낙방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새 원내대표 '친홍' 김성태

당 화합·지지를 회복·당 패싱 해결 과제...정책위의장 함진규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바른정당 복당파인 친홍(친홍준표) 성향의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이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은 정책위의장이 됐다.

3선의 김 의원은 12일 오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전체 112명 의원 중 10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55표를 얻어 친박(친박근혜) 홍문종 의원과 종립을 표방한 한선교 의원을 제치고 제 1야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서 친홍 성향과 바른정당 복귀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1표차로 과반을 얻어 승리를 안았다.

이에 따라 '친홍(친홍준표)-복당파' 연합은 앞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대체하는 신(新) 주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당선이 향후 정국을 부드럽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외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발표를 통해 "한국당의 당면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잘 싸울 줄 아는 사람, 투쟁 전문가가 저 김성태"라면서 강력한 대외 투쟁을 예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계파 갈등으로 흔들거리는 당을 화합하고 떨어진 당의 지지율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이날 1차 투표에서 힘겹게 당선되는 표결 결과에서도 보듯 당내 분열이 심각한 상황여서 이를 치유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또 다른 김 원내대표의 과제로는 '한국당 패싱' 해결이 꼽힌다. 바른정당 탈당과 합류로 한때 원내 1당을 넘볼 만큼 몸집이 큰 제1야당이지만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번번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6월 예산안 처리 과정과 7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국민의당과의 관계도 중요한 과제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안고 가야만 여당을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복귀파인 만큼 현재 바른정당에 잔류한 일부 의원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바른정당 잔류파의 복귀를 종용하는 작업을 하기에 수월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친박 저물고 친홍시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성태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전 원내대표,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 /연합뉴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물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 **전국대표 1588-1543**

담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